

영어수업대상 라이언 쌤의

영문법 훈련노트 1

수동태 훈련 1



● 수업 소개

1. 주어가 어떤 일을 직접 하느냐 아니면 어떤 행위를 당하느냐를 표현하는 것도 동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2. 주어가 어떤 일을 직접 행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하고 이를 문장에서 표현한 것을 능동태 문장

3. 반대로 주어가 어떤 일을 당하는 것을 수동이라고 하고 그것을 문장에서 표현해내면 수동태 문장이 되는 것

● 본 학습 - 코칭 1 수동태는 <be + p.p.>이다!

1. 수동태 구문은 보통 <be 동사 + 과거분사 + by 행위자>로 이루어진다
2. 주어가 어떤 행위자에 의해서 특정한 행동을 당했다는 의미
3. 이때 by는 그대로 해석하면 ‘~에 의해서’ 가 되지만 “~한테” 어떤 일을 당했다”와 같이 그때그때 문맥에 맞게 자연스런 우리말로 옮기는 것이 좋다

He was teased by his best friend.

그는 가장 친한 친구한테 놀림을 당했어.

The wall was painted by Susie.

그 벽은 수지에 의해서 칠해졌어. → 수지가 그 벽을 칠했어.

● 본 학습 - 코칭 1 수동태는 <be + p.p.>이다!

Things to remember

1. 능동태 문장 하나만 사용하면 되지 왜 굳이 수동태 문장을 사용해야 하는 걸까?
2. 능동태와 수동태의 미묘한 차이는?

(1) Susie painted the wall.

- * 능동태 문장
- * 주어는 Susie
- * 벽을 칠한 것이 Susie라는 것을 강조해주는 문장

(2) The wall was painted by Susie.

- * 수동태 문장
- * 주어는 The wall
- * Susie가 벽을 칠한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벽이 칠해졌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것

● 본 학습 - 코칭 1 수동태는 <be + p.p.>이다!

3. 주어가 어떤 일을 당한 것이 그 행위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될 때 수동태 문장을 사용

4. 따라서 수동태 다음에 <by 행위자>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The tower was built in 1860.

그 탑은 1860년에 지어졌어요.

▶ 누가 지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탑이 세워졌다는 사실 자체에 초점을 맞춘 문장

● 본 학습 - 코칭 1 수동태는 <be + p.p.>이다!

Exercises

주어진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보세요.

1. Someone stole my ring.

My ring

2. He wrote the book.

The book

3. She washes her car mostly on Sundays.

Her car

4. He fixed the broken radio.

5. They always record my presentations.

● 본 학습 - 코칭 2 수동태에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

1. 동사만으로 힘이 달릴 땐 조동사를 이용해
여러 가지 의미를 덧붙여주고, 보다 구체적
으로 시제를 표현하기 위해 진행 시제나 완
료 시제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

2. 수동태에도 역시 조동사나 진행형, 완료형
등을 붙여 다양한 색깔의 의미들을 전달할
수 있다

● 본 학습 - 코칭 2 수동태에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

<p>〈조동사 + be + p.p.〉</p> <p>● 조동사가 붙는 수동태: 가능성(can), 추측(will, may), 의지(will), 의무(must) 등의 의미를 덧붙여주고 싶을 때 사용</p>	<p>〈be + being + p.p.〉</p> <p>● 진행형이 붙는 수동태: (계속) ~당하고 있다, (계속) ~되어지고 있다</p>
<p>〈have + been + p.p.〉</p> <p>● 현재완료형이 붙는 수동태: ~되고 있(었)다</p>	<p>〈had + been + p.p.〉</p> <p>● 과거완료형이 붙는 수동태: ~됐다</p>
<p>〈be + p.p. + to 동사원형〉</p> <p>● 수동태 + to부정사: 이때 to부정사(~하도록, ~하라고)는 수동태 동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p>	<p>〈need/want + -ing〉</p> <p>● 수동의 의미를 전달하는 독특한 형태: need나 want 다음에 동명사(-ing)를 붙이면 수동의 의미가 첨가되므로, 뒤에 따로 수동 형태를 만들 필요가 없음</p>

● 본 학습 - 코칭 2 수동태에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

The car will be washed tomorrow.

그 차는 내일 세차될 거야.

▶ 조동사 will을 써서 수동의 의미에 미래 시제까지 표현했네요.

The crop is being harvested by a group of soldiers. 농작물이 군인들에 의해 수확되고 있어.

▶ 수확되고 있는 현재 진행 상황을 표현하고 있네요.

The windmill has been used for over 40 years. 그 풍차는 40년 넘게 사용된 거야.

▶ 현재완료 시제를 써서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수동의 의미를 표현했어요.

● 본 학습 - 코칭 2 수동태에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

My boss had been summoned to court.

우리 상사가 법정에 소환됐어.

▶ 과거완료 시제를 수동태에 붙여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보다 더 이전에 소환되었음을 나타내고 있군요.

She was told to clean her room. 그녀는

방 청소를 하라는 말을 들었다.

▶ 말을 들었는데(was told)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들었는지가 to 이하에 나타나 있네요.

● 본 학습 - 코칭 2 수동태에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

The floor needs fixing.

그 마루는 고쳐질 필요가 있어.

→ 마루를 고칠 필요가 있겠어.

▶ 물론 The floor needs to be fixed. 라고 수동태를 사용해 길게 쓸 수도 있지만 need 뒤에 -ing를 쓰면 말이 더욱 간단해지는데, 굳이 복잡하게 쓸 필요 없겠죠?

● 본 학습 - 코칭 2 수동태에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

Exercises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1. The magazine will is edited pretty soon.
2. The letter has be sent by one of the crazy fans.
3. The new employee was told make thousands of copies.
4. I'm be chased by the police.
5. The house cannot be sell easily.
6. The new clothing line was be designed by Mark.
7. I was ordered leaving the office.
8. The bush needed trim.